

IMF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 -대구시민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Changes of marriage expense after the IMF crisi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es

계명대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朴 惠 仁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趙 銀 淑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Prof. : Hye-In, Park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Eun-Suk, Cho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of marriage expense after IMF crisi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es. The data were gathered in Taegu city about marriage expense from newly-married people and parent generation during April, 1998. Through the analysis of that data, we identified the reducing of the 'bubble' in marriage consumption after the IMF crisis. But that chang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asses. The most steep drop of marriage expense was fall to upper-middle classes, while upper classes revealed a rising tendency and lower-middle & lower classes' stable tendency in marriage expense.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as the 'polarization of consumption' and 'the collapse of middle classes' after IMF crisis.

I. 문제 제기

지난 10여년간의 혼례소비문화는 우리사회가 개선해야 할 과소비의 표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혼례소비 실태를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대비 혼례비용의 비율은 198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¹⁾ 1990년대 이후의 혼례소비문화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거품경제를 그대로 반영한 듯 과소비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997년 말 이른바 IMF경제위기로 불리는 경제적 환경의 급변은 전반적인 국민소비수준의 위축을 가져왔다.

소비성향의 지나친 위축은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품경제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사회가 가진 체면문화 및 허례허식 등이 결합되고, 거기에 혼례산업의 상업주의까지 가세하여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혼례소비문화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상황이 혼례의 본질과 관계없는 과소비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추이에 관심이 기울여졌다.

실제로 IMF이후 소비문화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한 조사(한국소비자보호원, 1998)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혼례소비가 건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이 70%에 이르렀고, 향후 혼례소비문화의 건전화에 대해서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IMF이전 조사에서보다 2.9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혼례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실제비용조사가 아닌 전반적인 의식조사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혼례와 같은 '인륜지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식과 실제행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F이후 혼례소비의 변화양상을 혼례당사자들에 대한 실제비용조사에 근거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혼례소비의 변화양상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²⁾를 하고 계층별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경제적 위기상황이 각 계층별로 혼례소비에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비용이 낮아지는 혼례소비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별해보고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들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를 토대로 향후 혼례소비문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IMF를 전후한 혼례비용의 변화경향을 밝혀냄으로써, 경제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과소비적인 혼례비용이 과연 건전하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일 이러한 혼례지출의 건전화가 경제위기의 어려움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련하여 특정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향후 우리사회전체의 건전혼례 정착을 위해 어떤 방향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를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이 연구의 조사방법과 자료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결과를 1)혼례비용의 계층별 비교 2) IMF전후의 혼례비용의 비교 3) 계층별로 본 IMF전후의 혼례비용비교의 순으로 고찰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먼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조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

- 1) 지난 30년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에 대한 결혼비용의 비율변화추이를 보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결혼비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15배 정도였으나 90년대에 들어 18-25배로 치솟았다(한겨레신문, 1996년 9월 24일)
- 2) 경제위기의 영향은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지만(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8), 상층의 경우 이미 확보된 자산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들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기 남녀 혹은 자녀를 결혼시킨지 3년 이내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혼례비용자료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선행 결혼비용조사연구들(서병숙 외, 1997; 선진영·정순희,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에서 사용된 질문지양식과 조사항목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혼례비용조사를 위한 면접은 조사의 취지를 숙지한 대학생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자의 지역적 제한성으로 인해 조사지역은 대구시내로 한정되었다. 조사시점인 '98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96년 5월 이후에 결혼한 남녀 혹은 자녀를 결혼시킨지 3년 이내인 어머니들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을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으로 인해 비확률적인 유의표집방법에 의존하여 표본추출을 하였으며 1998년 4월 13일에서 30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표본수는 696사례이며, 유효응답율은 부모세대 65.3%, 자녀세대 89.3%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는다. <표 1>을 통해 보면, 혼례당사자(자녀세대)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많이 표집되었다.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88.2%가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시기는 IMF 이전과 이후가 6:3 정도의 비율로 표집되어 있다.

한편 이 자료에서 조사된 대구시민들의 혼례비용수준은 최근에 실시된 다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비용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⁴⁾. 이러한 혼례비용 조사결과의 차이는 각 조사마다 표집대상이 다르고 결혼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혼례 총비용을 응답자들의 일괄적인 총비용 응답에 기준하지 않고 지출항목별로 일일이 조사한 후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항목별로 누락된 자료들이 총비용에 산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나타난 혼례 비용은 실제비용보다 적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혼례 비용의 절대치보다는 IMF이후의 변화추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조사 결과에 크게 유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된 이유는, 이 조사가 혼례소비와 관련된 의식조사도 병행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대간 의식차이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식조사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4) 최근에 실시된 다른 혼례비용조사의 결과 비교표

조사대상	주택비용을 뺀 혼례총비용
1996.5월-1998.4월 결혼한 사람 대구시 중산층(본 조사자료)	2,968만
1992년-1997년 결혼한 사람 서울시 거주자 (서병숙 외, 1997)	약 3,597(중산층의 경우)
1997년 기준 전국 推計자료 (소비자보호원, 1997)	3,679만
1995. 6월-1996. 5월 결혼한 사람 전국 주요 11개 도시 거주자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1996)	3,290만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계(빈도/%)
(대상자녀의) 성별	남자	203(30.2)
	여자	470(69.8)
세대별	부모세대	294(42.2)
	자녀세대	402(57.8)
(부모의) 생활수준	상	22(3.2)
	중의상	283(41.7)
	중의하	316(46.5)
	하	58(8.5)
결혼시기	1996년	200(30.0)
	1997년	264(39.6)
	1998년	203(30.4)
계		696(100.0)

3. 개념정의

1) 혼례비용

이 조사에서 혼례비용은 혼수비용, 의례비용에 주택마련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각 항목별로 지출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혼례비용 항목	구성내역
혼수비용	예단, 배우자예물, 신혼살림장만(혼수) (*지참금은 제외시킴)
의례비용	약혼식 제비용, 합집이행사, 결혼식제비용(예복, 화장, 야외촬영, 폐백 포함), 하객 및 친구피로연, 답례품, 신혼여행, 신행이바지음식, 신혼집들이 행사.
주택비용	전월세 혹은 주택구입비

5) 각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와 1997년도 기준 환산치는 다음과 같다.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1997년도 화폐가치 기준 환산치
1995년	100.0	
1996년	104.9	1.045
1997년	109.6	1.000
1998년	118.4(4월기준)	0.926

2) 물가변동을 고려한 환산비용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든 비용들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1997년도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물가지수⁹⁾를 고려할 때, 1997년도의 100원은 1996년에는 104.5원, 1998년 4월에는 92.6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비용들을 1997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3) 계층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된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였다. 혼례비용은 혼인당사자의 소득보다는 부모소득수준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선진영·정선희, 1997)는 선행연구결과를 근거로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여 혼례비용을 분석하였다. 상, 중의상, 중의하, 하층의 4개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분류결과 인식된 생활수준을 근거로 계층을 나눈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상층과 하층은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4. 연구문제

이 연구는 대구시에서 최근 3년이내에 결혼한 사람들의 혼례비용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대구시 거주자들의 계층별 혼례비용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대구시 거주자들의 IMF이후의 혼례비용은 IMF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3. 대구시 거주자들의 IMF이후의 혼례비용의 변화는 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결과

먼저 혼례비용 및 각 하위영역별 비용이 계층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IMF전후 시기별로 혼례비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혼례비용의 변화가 계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IMF경제위기가 혼례소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직접적인 응답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1. 혼례비용의 계층별 비교

1) 혼례비용

〈표 2〉에서는 혼례 1건당 지출되는 평균비용이 계층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경향은 계층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혼례비용에 있어서 계층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주택마련비용, 혼수, 의례비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유의도 $P < .05$ 수준

에서 추후검증(Scheffé Test) 한 결과 주택마련비용과 혼수비용에 있어서는 중상층과 상층의 비용이 중하층과 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례비용에 있어서는 중상층과 상층의 비용이 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이 높을수록 혼례 각 항목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혼례비용의 계층별 차이 중에서도 주택비용에서의 차이는 향후 재산증식에서의 차이를 형성하는 기초로 작용하여 계층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일회성 비용에 속하는 의례비용에 있어서 중하층의 비용지출이 상층 및 중상층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상업주의에 의해 변질된 ‘호화로운 결혼식’ 문화가 모든 계층에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혼수비용

혼수비용의 계층별 비교를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예단과 예물, 혼수품 모두에서 계층별 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단과 혼수품에 있어서는 중상층과 상층의 비용지출이 중하층과 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예물에 있어서는 중상층의 비용지출이 상층에 비해 높았으며⁶⁾, 이러한 차이로 인

〈표 2〉 혼례 건당 평균 비용의 계층별 비교

(단위: 만원)

집단	주택비용		혼수비용		의례비용		건당총비용 (평균)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상층	3,810	a	1,844	a	1,135	a	6,789
중상층	3,375	a	1,729	a	1,088	a	6,192
중하층	2,735	b	1,361	b	987	ab	5,083
하층	2,423	b	1,009	b	671	b	4,103
F값	5.18**	/	10.78***	/	6.02***	/	/

** $p < .01$ *** $p < .001$

〈표 3〉 혼수비용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집단	예단비용		예물비용		신혼살림비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상층	625	a	441	ab	1,102	a
중상층	659	a	523	a	959	a
중하층	491	b	393	b	809	b
하층	392	b	338	b	653	b
F값	10.39***	/	4.88**	/	6.15***	/

** $p < .01$ *** $p < .001$

6) 중상층의 비용이 상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의 끝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해 예물비용은 중하층과 하층의 비용이 중상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예단과 예물은 혼례 소비품목 중에서 제거되어야 할 허례적 요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항목에서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으나 중상층의 지출수준이 상층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3) 의례비용

〈표 4〉는 의례비용에 속하는 지출항목 중 대표적인 세 항목에 대한 계층별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표 4〉를 보면 결혼식비용, 피로연비용, 신혼여행비용 등 의례비용의 계층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추후검증결과 결혼식비용의 경우 상층과 중상층의 비용이 중하층과 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피로연비용의 경우는 중상층이 상층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 검증결과 중하층과 하층의 비용지출이 중상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여행비용은 하층이 중상층과 상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4〉 의례비용의 계층별 비교

(단위: 만원)

집단	결혼식비용		피로연비용		신혼여행비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상층	439	a	396	ab	204	a
중상층	370	a	437	a	174	a
중하층	326	b	356	b	157	b
하층	238	b	280	b	123	b
F값	7.04***		5.62***		4.16**	

** p < .01 *** p < .001

* 결혼식 재비용이란 예복, 화장, 사진촬영, 폐백, 예식장 대여료, 주례사례, 청첩장 등 결혼식 자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일컫는다. 이렇게 포괄적인 항목을 설정한 이유는 이러한 계 항목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예식장이 많아 개별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워기 때문이다.

4) 주택비용

주택비용⁷⁾의 경우 계층별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 추후검증결과 중상층과 상층이 중하층과 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용지출을 하고 있었다.

〈표 5〉 주택비용의 계층별 비교

(단위: 만원)

집단	주택비용	
	평균	Scheffé
상층	3.810	a
중상층	3.375	a
중하층	2.735	b
하층	2.423	b
F값	5.18**	

** p < .01

이상에서 나타난 혼례비용의 계층별 비교결과를 정리해보면, 대체로 계층이 높을수록 혼례비용의 지출은 더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층으로 갈수록 혼례소비를 통해 자기 집안의 경제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박민자, 1991)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혼례소비는 특히 주택 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상속의 의미(박숙자, 1991; 선진영·정순희, 1997)를 가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높은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혼례비용을 들이고 있는 현상은, 구조화된 불평등의 산물임과 동시에 불평등을 산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혼례비용의 차이는 결국 명예보다는 부의 추구를 더 강조하는 사회를 유도한다(Casey, 1989; 박민자, 1991에서 재인용)고 볼 수 있다.

한편 혼례비용의 계층차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계층별 비용의 차이는 주로 상층 및 중상층과 중하층 및 하층 간에 나타났다. 즉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중상층인 사람들과 중하층인 사람들 간에는 혼례소비

7) 주택비용은 혼례건당 평균 주택비용을 말한다. 이는 분가를 하지 않아 주택마련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의 주택비용을 0으로 하여 주택마련을 하는 경우의 주택비용과 평균을 내어 혼례 건당 소요된 평균주택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대체로 상층이 중상층에 비해 혼례비용의 지출이 높았으나 예단과 예물, 피로연비용과 같은 항목에서는 중상층의 지출이 상층의 지출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주관적인 계층인식이 중상층인 사람들의 혼례소비가 상층에 버금가는 소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층과 중상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객관적인 계층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IMF 이후의 혼례비용 실태(2, 3절 참고)를 보면 상층과 중상층의 지출수준이 확실히 차이가 나며 중상층의 비용수준은 오히려 중하층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시도된 계층 분류는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상층이 상층에 비해 지출수준이 더 높은 몇 항목들이 계층구분의 모호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중상층의 혼례소비수준이 상층에 버금가는 혹은 상층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이유는 혼례소비의 거품이 계층별로 다르게, 즉 중상층에 집중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절에서 살펴보겠지만, IMF이전의 거품경제가 절정인 시기(본 연구에서는 '96년과 '97년)에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중상층과 상층의 혼례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IMF이후 중상층의 혼례비용이 상층과 확실히 차이가 나며 오히려 중하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참고로 할 때 납득이 가는 일이다. IMF직전시기는 혼례소비문화에 과소비가 가장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소비는 모든 사람들이 상층의 혼례소비를 모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속화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상층의 경우 상층과 유사 혹은 능가하는 소비를 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맥락에서 예물, 예단, 피로연과 같은 주로 과시적, 허례허식적인 측면의 소비에서 중상층의 소비수준이 상층을 능가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볼 때, 과다혼수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간의 혼인거래행위로서의 문제(박민자, 1991)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혼례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자 했던 IMF이전 시기의 사회전반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2. IMF 경제위기전후의 혼례비용의 변화양상

소위 IMF 관리체제로 불리워지는 경제위기는 1997년 11월말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혼례비용에 반영되는 것을 관찰하려면 적어도 1998년 초를 그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혼수와 의례, 주택 등의 혼례준비는 통상 혼례시점 1-2달 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제위기가 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96, '97년도에 결혼한 경우를 IMF이전으로, '98년도에 결혼한 경우를 IMF이후로 구분하여⁸⁾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혼례비용의 전반적 변화양상

IMF 경제위기 후 결혼비용의 전반적 변화양상(표 6)에 제시되어 있다. IMF이전에 비해 IMF 이후 비용의 감소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주택비용이었다. IMF이전의 주택비용에 대한 IMF이후의 주택비용의 비율은 0.96으로 비용이 약간 감소하였을 뿐이며 두 시기의 비용에 대해 T검증을 해본 결과 두 시기간의 비용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수비용(T=2.43*)과 의례비용(T=2.32*)은 경제위

8) 결혼시기별 계층분포는 다음표와 같다. 결혼시기별로 특정계층이 편포되어 변화추이를 왜곡되게 관찰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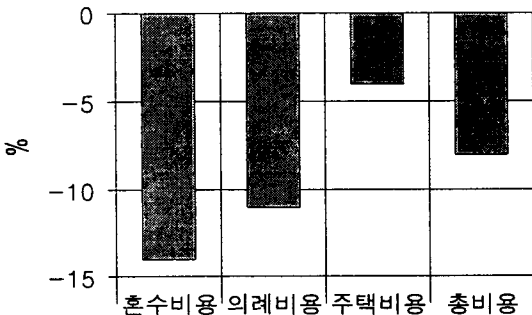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IMF이전	2.8 %	41.8	45.9	8.4
IMF이후	4.4 %	39.9	46.3	8.4

기를 전후하여 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수비용과 의례비용의 지출수준은 IMF이전의 지출수준에 비해 86%와 89%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수비용과 의례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례비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비용에서의 감소가 별로 없으므로 인해 IMF이후의 총결혼비용은 IMF이전의 92%수준으로 별로 낮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용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는 IMF이전의 비용을 100으로 두었을 때 그에 대한 IMF 이후의 혼례비용의 변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혼수비용의 감소비율이 1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주택비용은 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6〉 IMF 전후의 혼례건당 평균비용의 변화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 IMF이전	T value
혼수비용	1,570	1,350	0.86	2.43*
의례비용	947	839	0.89	2.32*
주택비용	3,028	2,904	0.96	.64
총결혼비용	5,559	5,131	0.92	1.63

* $p < .05$



〈그림 1〉 혼례건당 평균비용의 변화율

IMF경제위기는 일회적, 혹은 과소비적인 성향을 지닌 혼수 및 의례비용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미래

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주택비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혼례소비의 진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만 본 자료가 IMF 직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혼수비용의 변화양상

IMF전후 시기의 혼수비용의 변화를 항목별 개별비용으로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예단과 예물에서는 IMF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용의 감소를 나타내 각각 이전에 비해 78%, 75% 수준으로 지출이 감소하였다. 반면 예단과 예물에 비해 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혼수품에 있어서는 비용의 감소경향이 미약하였다. IMF이후에 사람들의 혼례소비지출은 종전에 거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가장 컸던 예단과 예물에서는 유의미하게 비용이 줄어들지만, 비교적 실용성이 있는 혼수품에 대한 지출은 그리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 IMF 전후의 혼수비용의 변화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 IMF이전	T value
예단	616	482	0.78	2.89**
배우자예물	510	381	0.75	2.56*
신혼살림	834	804	0.96	.48

** $p < .01$ * $p < .05$

3) 의례비용의 변화양상

IMF이후 의례비용의 변화를 대표적 의례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결혼식자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하객 식사대접 비용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상품화되어 있는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는 추세는 '일생에 한번 뿐인 결혼'이라는 논리에 밀려 IMF 이후에도 비용의 감소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피로연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잔치'로 대표되는

우리의 결혼문화에서 하객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경제위기 이전까지 확산되던 해외신혼여행 문화가 다소 후퇴하면서 신혼여행의 비용은 IMF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앞에서 IMF이후 총의례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당부분이 신혼여행 비용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타 의례비용의 감소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IMF 전후의 대표적 의례비용들의 변화
(단위:만원)

의례비용항목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 IMF이전	T value
결혼식제비용	288	285	0.99	.10
피로연 (하객식사대접)	359	337	0.94	.81
신혼여행	183	122	0.67	5.38***

*** p < .001

4) 주택비용의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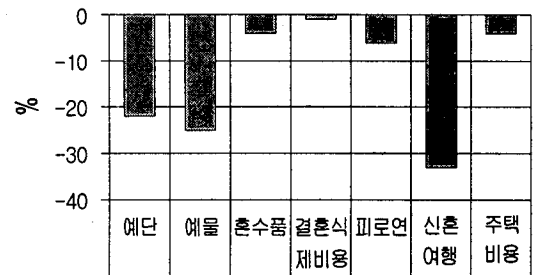
주택비용은 IMF경제위기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IMF이전에 비해 IMF 이후의 주택비용은 96%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평수와 부모동거비용⁹⁾을 살펴보면 주택의 액면 비용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IMF이후 주택마련을 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보다 넓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뒤에서 분석할 주택비용변화의 계층별 차이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IMF이후 주택비용에 대한 지출은 상층에서 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 실태를 종합하면, IMF 이후 혼인비용 중 주택비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내용상으로는 상층사람들이 보다 큰 주택을, 하층사람들은 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9〉 IMF 전후 주택비용의 변화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 IMF이전	T value
주택비용	3028	2904	0.96	.64



〈그림 2〉 혼수, 의례 및 주택비용의 항목별 변화율

혼수 및 의례비용과 주택비용의 주요항목별 변화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IMF 이전에 비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예단과 예물 그리고 신혼여행이었다. IMF체제이후 가장 먼저 빼내야 할 혼례 거품항목으로 일반인의 82.5%가 예물과 예단을 지적하고 있는데(소비자보호원, 1998)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러한 견해가 실제 행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반면 결혼식자체에 들어가는 비용(결혼식제비용과 피로연비용)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3. IMF 전후의 혼례비용 변화양상의 계층별 비교

IMF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는 계층별로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던 사람들의 임금소득하락과 실업 등은 과거 중산층의 실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8). 반면 임금 외의

9) '96, '97, '98년도별 신혼주택의 평수는 20.2평, 22.2평, 23.0평으로 늘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여 신혼주택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는 15.7%, 13.6%, 17.9%로 경제위기 이후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계층에서는 오히려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이와같이 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면, 혼례소비에 미치는 IMF의 영향 또한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IMF 전후의 혼례비용의 변화양상을 계층별로 보고자 한다.

1) 계층별로 본 혼례총비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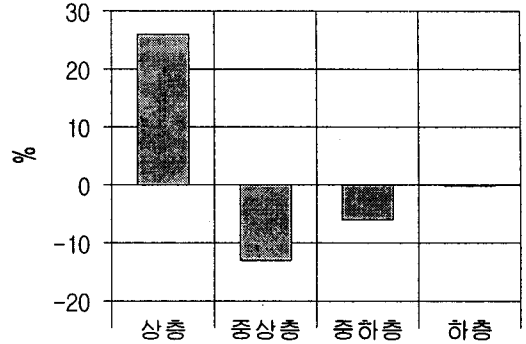
IMF를 전후한 결혼식 건당 총비용의 변화추이를 보면 계층별로 그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MF이후의 혼례총비용의 변화는 상층은 오히려 비용이 26%나 증가하고¹⁰⁾ 중상층은 비용이 13%나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중하층은 6%가 감소하였고 하층의 경우 혼례비용이 경제위기 전과 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는 상층의 소비증가와 중상층의 소비 위축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하층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혼례지출이 필수적인 것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의 정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IMF이후 중상층 생활과 의식변화 조사결과(현대경제사회연구소,1998)에 따르면 IMF이후 중상층에서 하층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상층의 어려움이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추이에서도 반영되고 있었다.

〈표 10〉 IMF 전후 혼례 건당평균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6,104	7,705	1.26	-1.19
중상층	6,348	5,504	0.87	2.08*
중하층	5,099	4,799	0.94	.85
하층	4,155	4,162	1.00	-.01

*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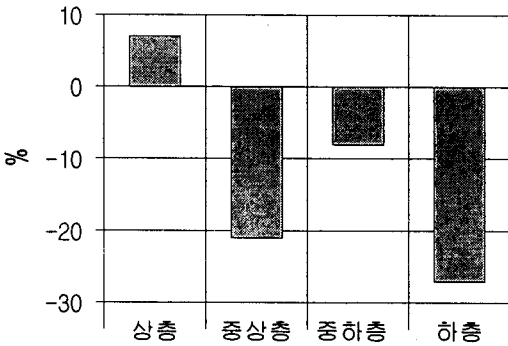
〈그림 3〉 혼례총비용 변화율의 계층별 비교

2) 계층별로 본 혼수비용의 변화

(1) 혼수총비용

혼수 총비용은 상층의 경우 오히려 7% 정도 증가하였고, 그 외의 계층은 비용의 감소경향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비용의 감소가 두드러진 계층은 중상층과 하층으로 21%와 27%가 감소하였다. 앞의 계층별 비용의 비교결과에서 중상층의 혼수비용지출이 상층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는데, 이와같은 중상층의 과소비는 혼수비용에 있어서 IMF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소한 혼수비용에 있어서 IMF이후 상층은 중상층과 유사하지 않은 확실히 높은 지출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층의 비용감소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하층의 비용절감노력이 예단과 예물같은 비실용적인 소비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앞에서 IMF 이후 혼수비용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상층이 아닌 중상층 이하의 계층에서 나타났던 경향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하층의 경우는 비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이 IMF 이후에도 비용의 감소가 비교적 적은 것을 볼 때 이들의 IMF이전 지출이 중상층에 비해서는 거품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10) 상층의 경우 비용의 증가경향이 뚜렷하지만 표본수가 작음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 혼수비용변화율의 계층별 비교

〈표 11〉 IMF 전후 혼수총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 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1,911	2,037	1.07	-.73
중상층	1,843	1,458	0.79	2.48*
중하층	1,394	1,287	0.92	.89
하층	1,099	803	0.73	1.04

* p<.05

(2) 예단비용

IMF를 전후한 예단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시기별 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층은 중상층 뿐이었으나 비용의 변화추이를 보면 상층과 중하층의 경우는 예단비용이 별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중상층(35%감소)과 하층(39%감소)의 경우는 뚜렷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¹¹⁾. 중상층에서의 비용감소는 IMF이전에 중상층의 예단지출이 형편에 비해 과소비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하층에서의 비용감소는 예단이라는 혼수품목의 경우 체면과 격식을 갖추기 위한 성격을 띠는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혼수는 하층사람들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임을 시사한다. 반

면 상층의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이 계층은 IMF로 인한 예단의 간소화 경향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하층의 경우는 비용의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동일한 중상층의식을 갖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상층과 중하층은 전혀 다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표 12〉 IMF 전후의 예단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566	587	1.04	-.45
중상층	768	496	0.65	3.17**
중하층	521	489	0.94	.60
하층	481	293	0.61	1.29

** p<.01

(3) 배우자예물비용

예물에 있어서는 전 계층에 걸쳐 비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의 변화추세를 본다면, 경제위기 이후 상층은 비용의 정체현상을 중상층은 28%, 중하층은 23%정도 비용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하층의 비용감소가 두드러져서 44%의 비용감소를 나타냈다. IMF체제이후 가장 먼저 빼내야 할 혼례 거품항목으로 전체의 82.5%가 예물과 예단을 지적하고 있는데(소비자보호원,1998) 예물에 있어서는 실제로 상층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비용의 감

〈표 13〉 IMF 전후 배우자 예물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441	429	0.97	.05
중상층	617	446	0.72	1.79
중하층	438	337	0.77	1.66
하층	486	270	0.56	1.66

11) 본 연구의 자료에서 상층과 하층의 경우 비용변화의 폭이 컸지만 표본수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소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의 감소는 비실용적인 부분에서 최대한의 절약을 피하는 하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는 예단에서와 마찬가지로 IMF로 인한 변화를 별로 나타내지 않았다.

(4) 혼수품 비용

혼수품비용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용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의 변화경향을 보면 IMF이전에는 중상층보다 더 적은 지출을 나타냈던 상층이 경제위기 이후 33%나 비용이 증가하여 중상층 이하의 계층에 비해 비용이 훨씬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위기 이전에 상층보다 더 높은 신혼살림 비용을 지출했던 중상층은 비용이 14%나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층의 경우도 12%정도 비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하층의 경우, 비교적 실용성이 있는 품목인 신혼살림의 마련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하층은 예단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IMF이후 비용의 변화가 크지 않다.

〈표 14〉 IMF 전후 혼수품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 IMF이전	T value
상층	871	1158	1.33	-.76
중상층	924	796	0.86	1.28
중하층	761	788	1.04	-.31
하층	715	627	0.8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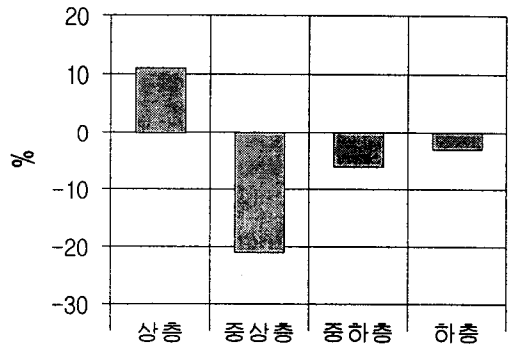
3) 계층별로 본 의례비용의 변화

(1) 의례 총비용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의례 총비용의 변화는 중상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상층의 경우는 의례비용이 이전시기에 비해 21%나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상층의 경우 의례비용이 11%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하층과 하층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례에 있어서 중상층의 과소비적 성향이 경제위기 이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층의 경우는 경제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여, IMF이전시기에 중상층과 비슷한 지출수준을 보였던 것에서 벗어나 중상층이나 중하층에 비해 훨씬 높은 지출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의례비용의 경우, 앞에서 분석한 혼수비용과 달리 하층의 감소경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혼예식이나 피로연, 신혼여행 등이 상품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구매를 통해 의례가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인 결혼의례상품의 규모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비용의 감소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IMF를 전후한 중하층의 안정된 지출수준은 의례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림 5〉 의례비용 변화율의 계층별 비교

〈표 15〉 IMF 전후 의례 총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 IMF이전	T value
상층	1103	1229	1.11	-.72
중상층	1057	832	0.79	2.90**
중하층	894	837	0.94	.76
하층	676	653	0.97	.22

** p < .01

(2) 결혼식 제비용

예복, 화장, 야외촬영, 폐백 등이 포함된 결혼식의 식비용의 경우는 전 계층에서 비용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비용자체의 변화폭은 상당히 큰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는 IMF이전시기에 비해 33%나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경제적 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상층의 경우 보다 화려한 결혼식을 추구하는 IMF이전의 추세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이 비용상승에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상층은 비용이 19% 감소하였고 하층도 13%감소하였다. 역시 중상층의 경우는 IMF이전에 상층보다 더 높은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에서 거품이 제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층의 경우는 결혼식자체에 들어가는 일회적인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른 지출항목에서 IMF를 전후한 변화를 별로 보이지 않던 중하층의 경우 결혼식비용이 13%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호화로운 결혼식’의 상

업주의로 인한 비용상승의 경향이 중상층을 넘어서 중하층에게까지 침투,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하객피로연 비용

하객피로연 비용은 전 계층에 걸쳐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상층과 중상층에서 11-12%의 비용감소가 있었다. 이는 결혼의례를 ‘잔치’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의 관습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푸짐한 대접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출항목에서 비용의 상승경향을 보이는 상층에서 오히려 피로연비용이 감소하였다. 이는 상층의 경우, IMF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검소한 예식이 되려고 애쓴 것’이 주로 피로연비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해된다. 왜냐하면 상층의 경우 IMF 이후에도 다른 혼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검소한 예식이 되려고 애썼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표 16> IMF 전후 결혼식 제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287	381	1.33	-.89
중상층	319	260	0.82	1.72
중하층	275	310	1.13	-.73
하층	239	207	0.87	.58

<표 17> IMF 전후 하객피로연 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439	387	0.88	.36
중상층	396	352	0.89	.88
중하층	339	327	0.97	.34
하층	262	267	1.02	-.07

12) 혼례소비에 미친 IMF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질문결과 (5점척도 평균값)는 다음과 같다. 이 질문은 IMF이후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F값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했던 것 보다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3.67	3.51	3.39	3.52	.39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 결혼식이 화려하고 낭비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더욱 애쓰게 되었다.	3.67	3.18	3.39	3.13	1.24
주택가격 혹은 혼수품 등의 단기적인 하락추세로 인해 결혼준비에 이득을 보았다.	3.17	2.79	2.82	2.78	.37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하객이나 부조금이 예상보다 적었다.	3.33	3.11	3.26	3.22	.49

(4) 신혼여행

IMF의 영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받은 부분이 신혼여행이다. 해외신혼여행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신혼여행비용의 추세를 보면 상층은 비용의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중상층은 42%, 중하층은 31%의 유의미한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하층의 경우 그보다 적은 폭인 16%의 비용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해외신혼여행으로 대표되었던 신혼여행에서의 과소비현상이 중간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해외 신혼여행 경향이 중상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타격을 별로 받지 않은 상층과 신혼여행에서의 과소비가 별로 없었던 하층의 경우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8〉 IMF 전후 신혼여행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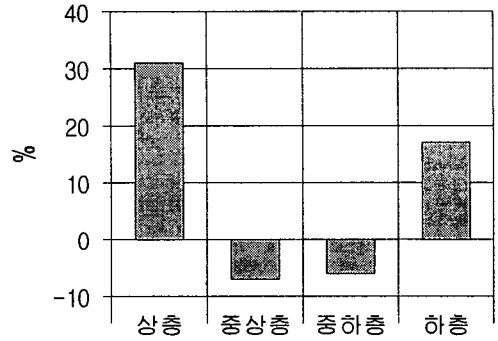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185	172	0.93	.22
중상층	206	120	0.58	5.46***
중하층	173	119	0.69	2.83**
하층	128	107	0.84	.90

** p < .01 *** p < .001

4) 계층별로 본 주택비용의 변화

혼례 건당 주택마련비용의 변화추세를 보면 상층의 비용증가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층의 경우는 주택비용이 31%나 상승하였지만 중간계층에서는 비용의 변화가 별로 없다. 하층의 경우 17%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주택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투자적 성격을 띤 비용의 증가는 결혼비용에 여유가 있는 상층과, 혼례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여 생활기반을 구축해야하는 하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혼수나 의례비용의 감소경향에 비해 주택비용은 별로 감소하지 않

았다는 측면에서 IMF 이후 혼례소비가 대체적으로 건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주택비용 변화율의 계층별 비교

〈표 19〉 IMF 전후 주택비용 변화의 계층별 비교 (단위:만원)

	IMF이전	IMF이후	IMF이후 /IMF이전	T value
상층	3,395	4,433	1.31	-1.02
중상층	3,444	3,202	0.93	.74
중하층	2,784	2,620	0.94	.58
하층	2,344	2,617	1.17	-.59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 혼례소비는 보다 건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문화가 건전화되고 있으며 향후 결혼문화의 건전화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비의식조사(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결과와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혼례의 대표적인 과소비 항목으로 지적되었던 예단과 예물비용이나 해외신혼여행으로 대표되던 신혼여행의 거품이 대폭 감소되는 변화가 IMF 이후의 혼례에서 나타났다. 반

면 실용적 가치를 보다 강하게 띠는 신혼살림, 주택 마련 등의 비용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혼례소비가 보다 실용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식과 피로연 등 결혼식 당일 의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식관련산업의 성쇠와 맞물려 비용의 감소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와 같은 의례문화는 IMF 이후 공공장소 등을 이용한 무료예식의 활성화 등으로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식관련산업 자체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IMF 이후 혼례소비문화의 변화는 계층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정확히 말하면, IMF 이후의 혼례소비의 건전화는 중상층 이하의 계층에만 해당하는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례의 과소비가 가장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층은 스스로를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계층별 변화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된 사회전반의 '상향식 소비구조'¹⁴⁾가 IMF직전에 이르기까지 중간계층 중에서도 특히 '중상층' 사람들의 혼례 과소비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과소비경향이 IMF 이후에 대폭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중간계층 중에서도 중하층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소비수준은 중상층보다는 하층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이 계층의 사람들은 혼례소비수준이 IMF로 인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하

층의 경우는 전체 혼례비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혼수품목(예단, 예물 및 일부 신혼살림)과 예식 및 신혼여행비용을 대폭줄여, 이를 주택비용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층 사람들의 전략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의 비용변화가 다른 계층과 가장 상이하게 나타난 계층은 상층이다. 이들은 IMF 이전에는 중상층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나타냈으나 경제위기 이후 각 지출항목에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음으로 인해, 중상층 이하의 계층에 비해 혼례비용이 차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상층의 비용상승은 신혼살림마련이나 주택비용과 같은 투자적 성격의 지출항목에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의 계층차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혼례비용변화의 계층별 차이와 관련하여, "이와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우리사회의 결혼문화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을 해보았다. 응답은 '보다 건전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한 경우와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절반 정도씩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향후전망에 있어서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¹⁵⁾, 상층과 하층의 경우는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 13) 일단 의례관련 상품 시장에 들어서게 되면 상품공급자들(예를 들면 예식장업주)이 제시하는 상품들 중 중간 이상 수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박혜인, 1990: 63-64) 또, 결혼예식과 관련된 상품들은 패키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비용상승 효과 또한 클 것이다.
- 14) 상향식 소비구조란 높은 계층의 소비행태를 모방하고 소비를 통해 계층의 상승이동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행태를 말한다. IMF이전의 거품경제시기에 스스로를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전반의 소비수준도 동반 상승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 15)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향후 결혼소비문화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전반적으로 지금과 비슷하게 지속될 것이다.	19.0%	4.7	2.0	7.1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감소해질 것이다.	33.3%	50.7	50.7	42.6
부유한 사람들은 더 성대하고 과소비적인 결혼을 하게되고 경제적으로 힘든사람들은 보다 검소하고 실리적으로 하게 되어 빈부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47.6%	44.6	47.4	50.0
* 2값	20.06*			

전망을 보다 많이한 반면 중상층과 중하층은 보다 감소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많이 피력하였다. 특히 상층의 경우는, 현재의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19%나 되었다. 이러한 혼례소비문화의 향후전망은 대체로 자기가 속한 계층의 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IMF이후의 소비행태가 고급이나 초저가 상품에 몰리고 중간제품이 붕괴하여, 중산층붕괴와 함께 소비의 양극화구조가 나타나고 있다¹⁶⁾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IMF 이후 혼례소비의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층이 다른 계층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출수준을 나타내면서, 나머지 계층은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IMF이후 혼례비용의 변화와 그 변화양상의 계층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IMF경제위기의 영향을 이와 같은 단기적 시점에서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본 조사자료는 IMF의 단기적인 영향을 통해 향후 혼례소비문화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추후에 다른 연구들을 통해 경제위기가 혼례소비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하여, 본 자료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변화양상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가 대구지역에 국한된 것으로서, 전국적인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른 결과들에 의해 그 일반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정자(1990). 재벌가의 혼인유형. 이효재 편. 한국가족론. 서울:까치, 37-59.
- 김득성(1996, 11월).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결혼문화발표회 자료집.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개발원, 37-64.
- 박민자(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레 관행에 관한 연구. 이효재 외 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47-175.
-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이효재 외 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75-115.
- 박혜인(1990). 한국전통혼례의 창조적 계승과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정부장관(제2)실 정책자료 90-5.
- 서병숙·홍병숙·이윤금·김성숙(1997).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학술대회 자료집, 17-82.
- 선진영·정순희(1997).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결혼비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저축추진 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실태 및 의식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혼수실태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체제 전후의 소비자의식 및 행태비교.
- 현대경제사회연구소(1998). IMF시대 중산층 생활과 의식변화.

16) 조선일보 '98년 10월 12일자 기사. '中價상품이 안팔린다'.